

믿음을 주시는 하나님

성경말씀: 히12:1-3

믿음: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고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확신하고 행하는 것
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,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.

세상들의 창조(3절): 진화, 혹은 재창조 같은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다.

장로들, 믿음의 족장들, 구약시대의 선구자들: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.

믿음으로 살면 다 형통하는가? 왜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었을까?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?

믿음을 갖고 구출을 받은 사례들(4-35절)

1. 예물을 드리는 것(4절): 아벨, 에베
2.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(5-6절): 에녹, 성화의 삶
3. 심판의 경고를 받고 준비하는 것(7절): 노아, 재림
4.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(8-9절): 아브라함
5. 자녀들을 낳는 것도 믿음으로 한다(11-12절): 사라
6. 믿음에서 믿음까지, 자는 것, 입는 것, 먹는 것, 공부하는 것, 일하는 것을 다 믿음으로 한다.
7.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(17-22절)
8. 모세의 이집트 탈출(23-29절),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크게 여김
9. 여호수아, 라합, 기드온, 바락, 삼손, 입다, 다윗, 사무엘, 여러 대언자들(30-35 전반부)

믿음을 갖고 구출을 받지 못한 사례들(35-38절)

35절 후반부에서부터 38절: 믿음을 가졌지만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산 사람들

36절의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기적적인 구출을 받지 못했다. 읽고 설명 ★★★

믿음의 사람들은 다 잘사는가? 다 아프지 않는가?

오순절 은사주의, 믿음만 있으면 낫는다고 가르친다.

그러나 36-38절은 믿음이 있어도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.

다 믿음의 사람들이다.

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.

38절: 세상은 이들이 거하기에 합당한 장소가 아니었다. ★★★

사도 바울: 베스도 총독 정신 나간 사람(행26:24), 유대인들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인물(행22:22)

세상의 오물과 찌꺼기(고전4:13)

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. 택하신 그릇,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★★★

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(39절, 13-15절)

1. 믿음 안에서 죽었다. 약속하신 것들을 당대에 받지 못했다.
가나안 땅의 소유, 하늘의 별들 같은 자손들, 메시아
그런데 믿음을 가졌다.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소유하며 살았다.
 - a. 멀리서 바라보았다. 틴데일, 루터, 변연
 - b. 확신하며 받아들였다(끌어안았다).
 - c.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다. 땅에 애착을 두지 않았다(골3:1).
 - d. 하나님이 만드신 영구한 도시를 찾는다고 선언하였다.
 - e. 그리고 믿음대로 땅의 고향을 찾지 않았다.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나할 수도 있다. 외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. ★★★
 - f. 이러면서 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.

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(16)

- a.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. 그들의 불법과 죄와 사악함에도 불구하고. ★★★
- b.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신다. 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
창조주 구원자, 심판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.
- c. 그리고는 부모자식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하늘에 영구한 도시를 만드셨다.

고전2:9

롬8:32

믿음의 실행(12:1)

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?

1. 이미 도달한 믿음의 영웅들을 본다(12:1).

다한 믿음의 증인들, 스타디움의 청중들처럼 우리를 보고 있다.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한다(롬15:4).

2. 우리 자신을 본다(12:1)

a. 무거운 것 제거(반바지)

b. 쉽게 우리를 엮어매는 죄 제거: 불신의 죄, 야구, 인터넷 중독, 성격, 복잡하게 사는 것...

c.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. 그리스 사람들의 올림픽 게임, 로마 사람들
그 당시 경주를 잘하는 것은 애국하는 것이요, 나라에 명예를 가져오는 것이다.

바울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경주하는 자들처럼 해야 함을 보인다.

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(12:2-3)

성경의 믿음은 긍정적 생각이나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다.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.
'주여 3창', '너무 뿌리 뽑는 것', '헌금', '교회 일'

2절: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. ★★★

그냥 믿음이 아니라 '우리의 믿음'이다.

구약시대: 율법 이전, 율법 이후 모두 믿음이다. 그런데 여기서는 신약시대의 믿음을 말한다.

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,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.

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. 믿음의 본을 보여 주셨다. ★★★

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떨치시고는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셨다.

바로 이 예수님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이다.

비록 히브리 크리스천들이,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견주겠는가?

죄인들이 모욕하고 침 뱉고 얼굴을 때리고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에도 다 참으사 세상의 모든 죄를
자기 위에 지고 묵묵히 용서하며 갈보리 길을 가셔서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.

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, 그것은 바로 그분이 만드신 믿음이요 완성하신 믿음이다. ★★★

여기에 더 더하거나 뺄 수 없다. 완벽한 믿음이다.

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모두 이루려는 믿음

죄들을 다 제거하려는 믿음

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믿음

다시 오시리라는 믿음

1000년 동안 통치하시리라는 믿음

새 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가 되시려는 믿음

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 우주에 이루시려는 믿음

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.

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. ★★★

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을 '믿습니다'(believe)하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믿음(faith)이
우리에게 온다. 우리의 의지적 동의와 함께 믿음이 온다. 믿음은 들음을 통해 온다(롬10:17).

이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. 오순절주의자들의 믿음과 다르다.

갈2:20,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. ★★★

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,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믿음 ★★★

구원도 그 믿음, 성화도 그 믿음, 죽음도 그 믿음

갈5:22-23, 성령님의 열매; 믿음과 온유와 절제, 개역성경은 이것을 충성으로 바꾸어놓았다.

결론

답답한 일, 고통스런 일, 배신당하는 일, 수치스런 일, 무시당하는 일

믿음의 창시자요,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.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. ★★★